

스산의
음절

2011 * 10

서산문화원

공약(空約)이 난무하는 공약(公約)의 시대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공약(公約)은 공법상의 계약을 말하며 사회에 대한 언약이다.

선거를 통하여 최고의 리더가 되겠다는 정치인들이 내놓은 공약이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 나돌 때마다 짜증스럽다. 요즘엔 서산시장 재선거로 16만 시민들의 마음이 여간 부산스러운게 아니다.

10월은 개천절이 있고 문화의 달이기도 하다. 기원전 2333년전 환웅이 하늘을 열고 고조선을 세워 우리 민족이 탄생된 달로서 우리는 모든 제천 행사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사회는 시장 재선거로 온통 난리 법석이다.

1948년 5월 10일 한국 초유의 민주주의의 희망인 총선거가 단행되어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고 헌법이 제정되며 초대 대통령이 탄생되는 희망적이었던 역사가 떠오른다. 자유민주국가로의 첫발을 가슴 들뜬 채 찬란한 해오름처럼 시작됐건만 선현들을 우리러 부끄럽기 짝이 없는 선거풍토가 되고 말았다.

요즘 지자체장 출마자의 공약을 보면 대통령도 못해낼 공약을 서슴치 않고 있으면서 어떤 후보는 문화쪽의 공약은 전무하다. 문화예술은 정신적인 감성을 도모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계유수의 리더들은 21C를 문화와 정보의 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는 단군 이래 동방예의지국으로 성장해왔고 현재 세계 경제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는 문화와 경제의 흐름에서 30년은 떨어진 것 같고 국민의 정서 속에서는 정치현실이 치욕스럽기까지 한 형편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풍토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데도 공약(公約)이 空約으로 무례와 망동이 범람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줄 멘토들의 부재가 아쉽기만 하다.

오로지 자리만을 탐하는 선거가 아닌 지역의 축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독일의 안셀름그륀은 성공하고 있는 동안엔 삶이 중단 된다고 했다. 성공한 이름 즉, 높은 지위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라 한 것이다. 성공한 이름에서 힘을 빼낼 때 비로소 성찰이 일어나는 것이리라.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그 이름에서 힘을 빼자.

이제는 지혜와 창조가 필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식의 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유속에서 노력하는 창의력이 대세인 시대인 것이다.

누가 시장이 되던 지혜로움으로 16만 시민을 리드해 가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임할 때 시민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정보 편향에 빠져 소통부재를 부른다면 같은 돌에 세 번 자빠지는 우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말과 뜻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음을 기억해주길 바라면서 현명한 시장이 뽑히길 기대해본다.

瑞山海域의 역사민속과 민중생활사

주 강 현

(제주대석좌교수 · 해양문화연구원장)

차 례

- I. 서산의 해안취락과 어민의 삶
 - 1) 조선후기 : 호산록의 경우
 - 2) 일제강점기 : 『한국수산지』의 경우
- II. 서산의 해상교통
 - 1) 운하

■ 서창리

본군 남서안의 남단 결성군과의 경계에 있다.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전안(前岸)은 진흙땅이 멀리 펼쳐져 있고 앞바다는 모래 등이다. 안변(岸邊)에는 작은 돌을 가지고 축조한 방파제가 있다. 그렇지만 퇴조시에는 전부 갯벌이 된다. 인가(人家) 20호, 주민은 농업을 주로 하고 부업으로 어업에 종사한다. 부인은 대개 조개, 게 등을 채취하고 인근 마을로 행상을 다니면서 쌀이나 보리와 교환한다. 이 지역에서 蛸(소: 오징어)와 새우가 난다. 연승(延繩)에 달린 먹이에 의존해서.

■ 생천리

서창리의 서쪽 5-6町에 있다. 연안에 위치한 서창리와 큰 차이가 없다. 繫 船場은 간만에 관계 없이 노출된다. 토지가 협소해서 겨우 수전(水田) 60斗落을 보유하고 구릉지 위에 인가 40호가 집단을 이룬다. 주민은 대개 각지로 출가해서 어업에 종사한다.

■ 봉산리

생천리와 사기소리와 사이에 있다. 뒤로 산을 등지고 앞쪽의 해안은 높은 갯벌로서 조수의 도달은 대조(大潮)시에만 있다. 인가 51호, 토지는 평탄하고 경지가 많다. 주민의 생활은 생천리에 비해서 조금 유복하다.

■ 사기소리

봉산리에 접한다.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깊은 만을 이루더라도 갯벌의 지대가 높아서 삭망(朔望) 양조(兩潮)시 외에는 조수의 침수가 없다. 부근에 인가 58호, 수전 3600요락(料落), 화전

1400요락이 있다. 주민들은 농업을 주로 하면서도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역시 많아서 어살[漁簞]어장 7개소가 있다. 예로부터 그 소유자는 일정해서 매매·증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살 1개소의 축조비는 20원 내지 30원을 필요로 한다. 매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건설하는데, 주민들은 풍어 시에 어획물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다.

■ 상대산리·하대산리·석포

상대산리는 인가 5호, 하대산리는 3호, 석포는 37호를 이루고 서로 접하면서 남면에 속해 있다. 뒤로 구렁이 연달아 있고 앞으로는 높은 지대의 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선박을 정박하기에 적합하다. 상대산리의 전안(前岸)은 깊은 간출만(干出灣)으로서 사기소리에 인접하는데, 대조시 이외에는 양리 사이의 왕래는 개펄위를 통로로 한다. 하대산리는 상대산리의 북쪽에 있다. 석포는 하대산리에 접하고 각 마을 어디에서든 모두 토지가 협소해서 수전(水田)이 없고 겨우 화전 20요락 내외를 보유하고 있다. 주민의 다수는 출가를 앓고 여자는 물가에서 패류를 채취한다.

II. 서산의 해상교통

1) 운하

조선시대의 해양정책의 기본은 선운(船運)이었다. 조선후기에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 잉여생산물이 처분되면서 자본의 축적이 가능했다고 하면, 그것을 매개하는 기본적 역할은 말할 것도 없이 운송 체계였다. 운송체계란 그 의미에서 볼 때, 지역 간 이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운송은 생산능력에 서뿐만 아니라 물화의 가치를 증대시켜주었다. 왜냐하면 물화의 가치는 장소적 제약을 받는 탓이다. 실로 자본축적의 전제가 되는 전국적 시장권, 또는 원거리무역을 위해서는 운송체계의 발달이 필수적이었다. 더욱이 조운선의 제도화는 국가재원인 세금징수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소중하였다.⁶⁷⁾

조운선이 나타나는 조로가 험난하기로는 안흥과 강화 손돌목을 꼽았으며, 모두 돌뿌리가 준험하고 물결이 빨라 배가 자주 난파당하였다.⁶⁸⁾ 가령 태종 14년 8월의 경우, 대풍으로 전라도의 조선 66척이 침몰하여 200명의 익사자와 미두 5,800석이 패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듯 끊이지 않는 해난사고 때문에 굴포(掘浦)는 이미 고려 인종 때 부터 의론된다. 고려 인종 12년, 안흥정 밑의 해로는 많은 갈래의 흐름이 부딪치고 암석의 험악함이 있으므로 홍주를 통해 수로를 굴착하여 통하게 하면 배를 운행하는데 바르다고 해서 수천의 사졸을 동원하여 10여리를 굴착하게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려말 공양왕 3년에도 다시금 이미 굴착한 도랑을 파게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신숙주가 다시 굴착하였으나 역시 성취하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18권(선조17년 4월26)에 감목관(監牧官) 신점(申黈)이 서계(書啓)하기를, “전라도의

67)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연구』, 일조각, 1989.

68) 다산은 배가 난파당하는 원인을 다음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배를 만드는 제도가 좋지않고, ② 수령들이 가외의 것을 보태어 실은 때문이며, ③ 뱃사람들이 일부러 파선시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經世遺表』 1권 지관 호조)

전세(田稅)를 배로 운송할 때 안흥량(安興梁)에서 해마다 배가 침몰하여 조운을 그르칠 뿐 아니라 또 물에 빠져 죽는 조군(漕軍)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굴포를 파서 왕래할 수 있게 하거나 혹 그곳에 창고를 설치하여 조선을 그 아래 정박시켜 창고에 곡식을 옮기고 나서 빈 배로 서산 경내로 돌아가 정박하게 한 다음 이어 육로로 운반하여 다다 다시 배에 싣게 하소서. 그 사이의 거리는 육로로 10리가 채 못되니, 납세하는 자들에게 약간의 되쌀을 더 내게 하여 육로로 옮기는 비용을 치르게 하면 사람들이 다투어 그 일에 응모할 것이어서 운송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만세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해사에 내려 십분 상의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이에 호조 정랑 박충간(朴忠侃)을 보내어 창고 설치에 대한 편부(便否)를 순시하게 하였다.

효종 원년(1650)에는 영의정金玉(金堉)이 다시금 안흥에 포를 굴착하고 창을 설치하여 조로를 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논의 도중에 거부당하였다.⁶⁹⁾ 이른바 실학파들의 견해도 잇따른다. 실학파들이 이구동성으로 운하건설을 주장하였음은 그네들의 시각은 이미 선진적인 해양정책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일찌기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僞說)에서, ‘해양이 서로 연해져있으므로 달통하지 못할 곳이 없는데 어찌 통로를 연달아서 운수할 수 없겠는가? 그런데 전의 폐단을 거울삼지 않고 나귀로 실어나르는 일을 변경하지 않으니, 매우 탄식할 일이다’고 하면서 안흥의 해난사고가 잦음을 한탄하고있다.⁷⁰⁾ 영조 조의 지리학자인 정상기(鄭尙驥:1678-1752) 같은 이도 운하를 파서 조운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적극적인 방안도 내놓고 있다.

“우리 동국(東國)은 고려 때부터 모두 삼남 조세를 수운해서 한 해 동안 경비에 충당해왔다. 그런데 바닷길이 천여 리 사이, 갈라진 포구, 쌓인 해감에 빠지기도 하고, 바위 벼랑에 선 돌에 부딪히기도 하여, 그 부서지고 없어진 배가 한둘이 아니었지마는, 가장 위태하고 가장 험난하기로는 호서 안흥 여울보다 더 한데가 없다. 그곳 수면에는 오똑한 돌들이 날카로운 창 같은데, 짧은 것과 긴 것이 물 복판에 벌여져 있다. 물이 돌에 부딪치면 바람이 없어도 무섭게 밀려오는 파도가 항상 치솟는다. 날며 뿜는 것이 비와 같으니 보는 사람은 담이 떨리고 마음에 놀라지 않는 자가 없다. 공사(公私) 배로서 이곳을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솜씨 좋은 사공이 만조가 되어서 물결이 고요하고 바람이 잔잔한 때에 형세를 살피고 편한 때를 노려서 지나간다. 만약 그렇지 않아서 배가 한번이라도 창날같은 돌에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파선되는데, 배 열 채가 통과하게 되면 한 두 채는 번번이 실패한다. 배 한 채에 탄 사람이 많으면 4,50명이고 적어도 2명 이하는 아니며, 적재한 쌀도 많으면 2,3천석이고 적어도 천5,6백석 이하는 아니다.....굴포(掘浦)라는 곳이 있다. 곧 안흥산맥이 지나간 곳인데 본디 높은 산이나 큰 기슭이 아니고, 다만 낮은 언덕과 평평한 두덕으로서 높이는 수십척에 불과하고 넓이는 수천여보에 불과하다. 그 남북은 모두 바다여서 호로병의 허리 같

69) 『練藁室記述』 別集 11권.

70) 『星湖僞說』 8권.

다. 진실로 이곳을 파서 뱃길을 개통한다면 안흥 수백여리의 험한 곳을 다니지 않게 되어서 길에 막힘이 없고 조운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까닭으로 고려 인종 때에 수천명의 인부를 내어서 뚫으나 마침내 성공하지 못하였다”.⁷¹⁾

사실 성공한 운하는 없다. 그러나 실학자들은 끊임없이 운하를 거론하였다. 실학자들의 한결같은 운하에 대한 지지 표명은 해양에 대한 진취적인 기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즉,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즉 천수만이 연결한 태안읍 인평리와 가로림만과 연결한 팔봉면 어송리 사이의 7Km에 달하는 거리를 착통하는 운하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 굴포는 실패를 거듭했지만 우리나라 운하 역사상 가장 오랜 것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자못 크다.

운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대신에 천수만쪽인 태안읍 평천리에 남창(南倉)을 세우고 가로림만 구도에는 북창(北倉)을 세워 놓고, 세곡을 실은 선박이 안흥량을 거치지 않고 천수만으로 들어와 세곡을 남창에 입고하면 여기서 육로로 다시 북창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라하여 북창에 옮겨진 세곡을 직접 선편으로 한양으로 조운하였으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수다하게 발생하여 지속되지 못하였다. 오죽하면 이같은 ‘편법’ 까지 써가면서 운송의 안전을 기하고자 하였을까. 그러나 지금도 당시의 운하 개착의 흔적은 남아있어 조상들의 항해력을 말해준다. 이들 굴포지역은 대부분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당시 해수가 찼었던 지점도 거의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굴포와 더불어 참고로 의항운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항운하의 개착지는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의 소원반도 서쪽에 위치한 국사봉과 대산 사이의 무내미(水踰洫)굴짜기를 말한다. 굴포운하가 난공사로 중단되자 다시 적지를 물색한 끝에 이곳으로 정하고 중종 16년(1521) 8월에 남곤(南袞), 김전(金鉉) 등의 정식 건의를 받아 이듬해에 중종의 동의를 얻어낸다. 그리하여 3000여명의 군정(軍丁)을 동원하여 착공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 중단하니 10여년간 방치상태에 놓이게 된다. 중종 32년(1537) 2월에 다시 공사를 실시하여 반년만에 완공을 본다. 그런데 머지 않아 막혀버려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의항에다 운하를 만드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이익이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굴포운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굴포공사가 난제라고 하여 의항운하를 건설한 것의 타당성에 관한 의문이다. 어차피 험난한 안흥량을 통과해야만 비로서 의항운하에 이르게 되고 또한 의항운하를 통과했다 손치더라도 얻어지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수로상으로 보아 의항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오히려 서울로 가는 시간이 연장될뿐더러 암초에 부딪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아 이 의항운하는 그 효율성부터가 의문인 것이다.⁷²⁾

71) 鄭尙驥, 『農圃問答』.

72) 『서산군지』, 1982, 543쪽.

독립운동가 이철영 (1884~1945)



이철영(李喆榮) 선생은 1884~1945년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인물이다. 그는 시대적인 환경에 처해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의 독립운동 활동은 그리 잘 알려진 편이 아니다. 그도 그럴것이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배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을 은둔자로 살았으며 도피생활로 거처를 자주 옮겼기 때문이다.

그의 독립운동 활동은 살펴보면 한일합방의 고유문이 경찰서 게시판에 걸렸는데, 격분하여 포고문을 찢고 게시판을 태워버렸다. 이로 인하여 왜경에 잡혀 석달간 심한 고문을

받고 도청 소재지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포승을 끊고 칼을 빼앗아 왜경 두명을 죽였다. 1926년도 『서산군지』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며, 이때 손가락 네 개가 잘리고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숯 굽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숯섬 속에 몸을 감춰 지게로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 구문도가에서 피신하고 반년동안 부상을 치유하여 완쾌되었다. 이후 계룡산과 지리산으로 들어가 십년간을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도 광복을 위해 단을 만들어 기도하였다.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최숙현(동생의 처남)의 주선으로 이의영이라고 개명하고 송악면 기지시리 노공재가에서 한학을 교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송산면 부곡리 등지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이로 인하여 1993년 『당진향교지』의 인물편에 선생과 관련된 기록이 전하게 된다. 선생은 끝까지 독신으로 생활하다가 1943년 동생집으로 돌아와 은거하다가 1945년 2월 8일 서거하였다.

선생이 서거한 이후 2년 뒤인 1947년에 지역의 민족의식을 지닌 분들이 제문을 짓고 의사로 추존하였으며, 1960년에는 서산군수와 지역유림들이 세운 추모비가 지금도 시청 정문앞에 있다.

이처럼 선생의 독립운동에 의사로서의 활동은 구전이나 지역일부에서 전해지다가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선생의 독립운동이 다시금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공주의 남자〉의 실제 주인공은?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왼쪽부터 수양대군(세조, 김영철 분), 이세령(문채원 분), 김승유(박시후 분), 김종서(이순재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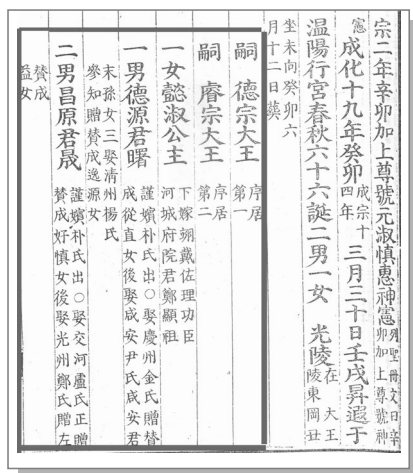
수양대군(세조)은 김종서와 그의 집안을 철저히 파괴했다. 그는 쿠데타 계유정난(1453년)을 통해 단종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한편, 단종의 보호자인 김종서와 그의 자손들을 저세상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다. 김종서 가문의 족보인 『순천 김씨 대동보』에는 김종서 이후로 계유피화(癸酉被禍)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아무개 계유피화” 식의 표현들이 많다. 아무개가 계유정난 때에 화를 입고 죽었다는 뜻이다. 이 집안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김종서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살아 남은 김종서의 후손들이 수양대군을 얼마나 증오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수양대군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도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미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KBS 〈공주의 남자〉는 수양대군의 딸인 이세령(실명 아님, 문채원 분)과 김종서의 아들인 김승유(박시후 분) 사이에 이루어진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다. 조선시대판 줄리엣과 로미오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관계를 잘 아는 시청자들로서는 이들의 사랑이 한편으로는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할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하고 의문을 품은 시청자들도 많을 것이다. 줄리엣과 로미오보다 더 위험천만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세령과 김승유. 이들의 사랑은 정말로 존재했을까?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정말로 사실이었는지 조사해보자.

〈수양대군(세조)의 자녀들〉

이남(二南)	일남(一男)	일녀(一女)	사(嗣)	사(嗣)
창원군 (昌原君)	덕원군 (德源君)	의숙공주 (懿淑公主)	예종대왕 (睿宗大王)	덕종대왕 (德宗大王) *주존 임금
			원래 해양대군	원래 의경세자

*근거 : 「선원계보기략」



『선원계보기략』 세조 편.
사각형으로 테두리를 그은 부분에
세조의 자녀들이 나온다.

조선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보기략』 「세조 편」에는 수양대군의 자녀들이 나온다. 표에서 그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한다. 표의 뒷부분에 있는 덕원군과 창원군은 후궁의 몸에서 난 서자들이다. 덕종과 예종 앞에 후계자를 의미하는 사(嗣)가 쓰인 것은, 이들이 사후에 왕으로 추존되거나 생전에 실제 임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족보에서는 장남이건 차남이건 적자전 서자건 건에 아버지의 뒤를 이은 사(嗣) 즉 후계자가 무조건 맨 앞에 기록된다. 장남보다 후계자가 더 높았던 것이다. 그리고 서자인 덕원군 위에 장남을 의미하는 일남(一男)이란 표현이 쓰인 것은 그가 서자 중에서 첫째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체 아들 중에서 첫째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숙공주다. 의숙공주 위에 일녀(一女)라는 표현이 있고, 그 외에는 딸이 없는 점을 볼 때, 적어도 족보상으로는 그가 수양대군의 유일한 딸이다. “익대좌리공신 하성부원군 정현조에게 시집갔다”(下嫁翊戴佐理功臣河城府院君鄭顯祖)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의숙공주는 계유정난 이후에 정현조와 혼인했다. 정현조는 조선 초기의 대표적 유학자인 정인지의 아들이다. 정인지는 계유정난 이후의 논공행상에서 1등 공신으로 책정됐다. 정현조는 아버지의 공로 덕분에 수양대군의 사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의숙공주가 수양대군의 외동딸이었고 그가 정인지의 아들에게 시집갔다는 기록만 놓고 보면 〈공주의 남자〉 속의 러브스토리는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것이 된다.

그런데 1873년에 전 의령현감 서유영이 편찬한 민담집인 『금계필담』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따르면 아버지의 살상행위에 환멸을 느낀 수양대군의 또 다른 딸은 아버지에게 격렬하게 대고 항의했다. 이 때문에 이들의 부녀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다. 이를 우려한 정희왕후 윤씨(수양대군의 부인)는 딸이 유모와 함께 몰래 궁을 빠져나가도록 했다. 왕후는 이 딸이 죽은 것처럼 가장했다. 한성을 빠져나온 이 딸은 충청도 보은군에서 김종서의 손자(도피 중)와 우연히 만나 산속 토굴에서 1년간 함께 숨어 지내다가 조출한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확인한 수양대군이 이들 부부에게 화해를 제안하면서 한성으로 올라오라고 했지만 부부는 세상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렸다는 것이 『금계필담』의 이야기다.

이처럼 조선시대 민담 속에서는 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손자가 비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김종서의 아들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지만, 민담에서는 김종서의 손자가 그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양대군의 딸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이야기가 성립한다. 수양대군의 딸이 하나였다는 『선원계보기략』의 내용이 마음에 걸리지는 하지만,



김승유와 이세령의 사랑

족보 편찬자가 또 다른 딸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감추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수양대군의 딸이 김종서의 아들과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김종서의 손자와 사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아버지뻘이기 때문이다. 김종서는 1383년 생이고 수양대군은 1417년 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서의 손자와 수양대군이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 김종서의 손자 중에서 누가 수양대군의 딸과 혼인을 했을까? 『순천 김씨 대동보』에서 이 점을 확인해보자. 김종서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다. 승규·승벽·승유·석대·목대가 그들이다. 석대와 목대는 서자다. 셋째 김승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양대군 측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수양대군의 칼날은 김종서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도 겨냥했다. 김승규의 세 아들 중 2명, 김승벽의 네 아들 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독 김승유 부자만큼은 화를 모면했다. 서자인 석대·목대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러므로 김종서의 손자 중에서 생존자는 총 3명이었다. 김승규의 아들, 김승벽의 아들, 김승유의 아들이다.

혹시 <공주의 남자>의 주인공인 김승유가 낳은 김효달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니었을까? 2가지 정황을 볼 때, 김효달은 절대로 주인공이 아니다. 첫째, 『순천 김씨 대동보』에 따르면 계유정난 당시 김효달은 아직 어린아이였다. 친척의 등에 업혀서 난을 피했다고 하는 기록에서 그 점을 알 수 있다. 『금계필담』에서는 수양대군의 딸을 만났을 때에 김종서의 손자가 쌀을 굶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것은 김종서의 손자가 어느 정도 성장한 청소년 혹은 청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금계필담』에서 김종서의 손자는 자기 아버지가 계유정난 때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종서의 아들 중에서 김승유가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에, 김승유의 아들이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 러브스토리의 여자 주인공은 왕실 족보에 나오지 않는 수양대군의 또 다른 딸이고, 남자 주인공은 김승규나 김승벽의 아들 중에서 장성한 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주의 남자> 속의 김승유와 이세령은 실제로는 숙부와 조카며느리의 관계였던 것이다.



글쓴이 소개

김 종 성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동양사 전공 박사수료
-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한국사 인물통찰' 강의 중
-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읽기' 연재 중

박첨지놀이

“양반사회의 퇴폐와 모순을 인형극을 통해
풍자와 해학으로 고발한다”

박첨지놀이와 함께한 무형문화재 26호

김동익 선생



박첨지 : 여기서 평안 감사가 뭘 많이 잡아가지고 갔지?
 산발이 : 많이 잡아갔는데 말여..... 개평 좀 달라고 해도 주지않고 그냥 가데
 박첨지 : 아~ 그거 남도 주고 먹어야 하느디
 산발이 : 응. 그런디 말여 그거 혼자 먹다가 말여
 박첨지 : 응
 산발이 : 팍 체해버렸다네!
 박첨지 : 거~ 꿩고기 먹고 체한데는 약도 없다는디!
 산발이 : 약읍다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4구 고양동 마을에 전해내려 오는
인형극 박첨지 놀이의 4막 평양감사마당 대사의 일부다.

고양동 마을을 지키며 평생 인형극 보존과 계승을 위해 헌신한
충남무형문화재 제26호 김동익 선생(82).

전국에 유일한 전래 인형놀이인 박첨지 놀이는 예술적가치가
풍부하고 해학이 넘치는 인형놀이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익 선생은
2000년 1월 11일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다.



“어려서부터 동네 어른들이 인형을 만들고 마을 마당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인형극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박첨지놀이와 접하고 살았지요. 커 가면서 농사를 짓고 겨울 농한기에는 사랑방에 모여 인형 등 인형극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공연 연습에 참여하면서 부도덕한 양반사회의 단점을 해학넘치는 기치로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인형극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양반사회의 부패, 해학으로 풍자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인형극을 배우면서 초창기에는 박첨지놀이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를 제작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탐곡리 4구에 전해져오는 박첨지놀이는 일명 꼭두각시 놀음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던 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더욱 부흥했는데 주인공인 박첨지를 통하여 양반사회의 모순을 풍자하고 본체를 버리고 첩을 얻어 살고 정치를 잘못해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평양감사에 대한 저항을 해학적으로 풍자해 건강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인형극이다.

박첨지놀이는 바가지 쪽으로 여러 모양의 얼굴을 만들어 막 뒤에서 여러 사람이 놀리며 방청석에 배치되어 있는(혹은 관중들과) 사람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첨지를 비롯해 각종 인형, 상여, 절의 꾸밈은 미술적 가치가 높으며 인형을 놀리는 사람과 관람석에서 주고 받는 대화는 저항과 풍부한 유머로 처리되어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철학성이 깃들어 몰락한 양반과 위정자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깨달음을 느끼게 하는 교육적 가치가 풍부한 인형극이다.

“1930년대 유영춘이라는 남사당패 출신의 놀이꾼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당시 놀이를 주관하고 있던 주연산 선생(1903~1993)과 함께 오늘의 놀이 형태를 만들었어요.”

김동익 선생은 박첨지 놀이가 오늘날까지 전해져오도록 한 것은 주연산 선생이라고 밝힌다.

김동익 선생도 평생을 인형극을 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지만 1954년부터 주연산 선생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배웠다.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하며 마을놀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박첨지놀이는 주로 농한기나 특히 추석명절에 크게 놀았는데 놀이판이 선다는 소문이 퍼지면 인근 마을에서 구경꾼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한다.

1980년대 활동이 주춤했지만 전통예술을 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이 찾고 언론에서 재조명 받으면서 1990년대부터 학생들에게도 전수해주고 지금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태수 전수자가 학교의 방과 후



체험활동으로 봉사하고 있다.

박첨지놀이는 탑곡리 4구 고양동, 온 마을 사람들에 의해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시킨 전국에서 유일한 민속인형극이다. 김동익 선생은 “민속 인형극이 조선시대까지는 전국적으로 전승되었으나 해방 후 혼란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오로지 탑곡리 고양동에만 남아있는 자랑거리”라고 말한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이 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형을 만들 물건을 사지 못해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호주머니를 털어 어렵게 인형극 준비를 했죠.”

김동익 선생은 지금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조금씩 지원되는 자금으로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루빨리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한다.

바로 박첨지놀이의 맥을 잇고 서산의 자랑, 나아가 한국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2000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우리 마을에서 함께 공연하던 주민이 20명이었어요. 그런데 10여명이 사망하고 현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남아있는 인원도 사무국장만 40대고 나머지는 60~7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힌 김동익 선생은 “전수관이 건립되면 이수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전국에서 유일한 인형극의 진수를 보여주며 계승해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박첨지 놀이는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두레의 현대적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양반층과 위정자들의 얼굴을 바가지로 만들어 극화시킨 마당극이다. 또한 주인공 박첨지를 통해 가부장적이고 퇴폐적인 양반사회의 모순됨을 해악과 철학적인 유머로 승화시켜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우리지역의 자랑스런 전통유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김동익 선생은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인정받고 있지만 1950년대부터 마을사람들과 함께 박첨지놀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남모를 희생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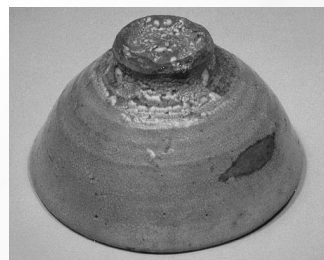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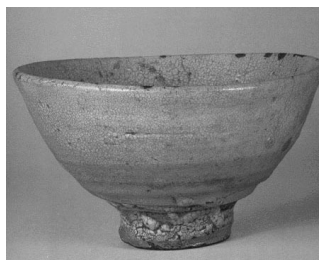
김동익 선생의 말처럼 현대적인 것, 편한 것만을 쫓아 우리의 전통과 멋스러움을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박첨지놀이 같은 특색있고 자랑할 만한 전통은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키는데 힘을 모아야하지 않을까?

그의 바람처럼 전수관이 빨리 건립되어 인형극을 이어온 고양동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장되지 않고 미래에 빛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길 바란다.

〈글 : 유 병 인〉

사발을 생각한다.

찰싹을 가루로 만든 말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그릇을 찻사발 혹은 다완(茶碗)이라고 한다. 발(鉢)이라고 하면 보통 몸통보다 입구부분이 넓은 그릇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재질이 있지만 차를 마실때는 도자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차를 즐겨 마셨고, 우수



〈기자에몬이도〉

한 도자기 기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차도구를 많이 만들어 왔다. 그러나 역사의 어느 한시점으로부터 점차 전통의 맥은 희미해졌고,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었다.

일본 교토의 대덕사(大徳寺)라는 절에 가면 기자에몬이도(喜左衛門井戸)라 불리는 찻사발이 있다고 한다. 차나 도자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 사발은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일본의 차인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참배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소위 '대명물'이라 불리는 찻사발이다.

일반적으로 이도다완(井戸茶碗)이라고 하는 것은 밥사발 형태의 다완으로, 일정한 형태적 특징을 가진 다완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도라는 말은 일본의 차인들이 붙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음대로 읽어 정호다완이라고도 부른다.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다. 조선사회에서는 차와는 상관없이 서민들의 일상 용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의 차문화가 다시 확산되고, 또 일본에서 대부분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발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다. 그것을 소유한 이가 누구인가에 따라 밥이 담기기도 하고 차가 담기기도 한다. 오랜 세월 독특한 다도문화를 만들어온 일본에서는 이 그릇을 찻사발로 사용했고 기자에몬이도라는 이름 아래 최고의 다완으로 여긴다고 한다. 명성에 걸맞게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의 종교’라는 칭송까지 받고 있다. 도대체 어떤 물건이기에 작은 그릇 하나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기자에몬이도에 대한 가장 탁월한 비평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미학자이자 민예운동의 창시자로 불리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1931년 <공예>지에 발표한 “기자에몬이도를 보다” 중 일부를 살펴보자.

- ‘기자에몬 이도’는 천하제일의 다완(茶碗)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다도에 쓰이는 다완을 세 가지로 나누는 데, 중국에서 전래된 것, 조선에서 전래된 것, 그리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다완은 고려’라고 흔히 말하듯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조선의 다완을 꼽습니다.
- 조선의 다완 중에서도 기자에몬 이도는 ‘이도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며 이를 능가할 찻사발은 없습니다. ‘다완의 극치는 이 하나로써 다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최고의 명물로 칩니다.
- 이도’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하였는가에 대한 정설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 지명의 음을 그대로 따다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자에몬’은 사람 이름이며, 그는 다케다라는 성을 가진 오사카의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다완을 소유하였던 까닭으로 ‘기자에몬 이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 ‘좋은 찻사발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극히 평범할까’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 이 다완은 아마도 조선의 밥공기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그릇이었을 것입니다. 만든 사람도 아무렇게나 만들었을 것입니다. 흙은 뒷산에서 캐오고, 유약은 화로에서 가져온 재를 사용하였으며, 물레는 중심이 험령하였을 것이며,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고, 굽도 거칠게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마는 보잘 것 없었으며, 그릇에 모래가 달라붙어 있어도 그런 것에 구애받지도 마음쓰지도 않았습나다.
- 그러나 그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아름다움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 평이한 찻사발이 이토록 아름다운가요?
- 아주 평범한 밥사발이 어째서 아름다운지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인들의 놀랄만한 창작인 것입니다. 밥사발은 조선인들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대명물은 다인들의 작품입니다. 이도는 일본에 건너오지 않고서는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을 생각한다” (학교재) 중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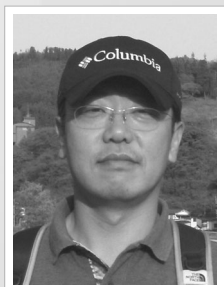
‘왜 이 평이한 찻사발이 이토록 아름다운가?’

도자기를 하고 차도구를 만들다 보면 이도다완 혹은 정호다완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때마다 매번 야나기 무네키와 같은 질문을 떠올린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에게는 잊혀진 이 작은 사발 하나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최근 우리 학계에서도 이 미지의 물건에 대해 그저 서민들의 막사발이라고도 하고, 제기 혹은 스님들의 발우였을 거라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예가들 사이에서는 이도다완의 재현에 일생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 ‘이토록 아름다운 것’의 실체를 밝히려거나, 그 아름다움을 재현해 보겠거나 하는 것은 ‘왜 이 사발이 이토록 아름다운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원래는 우리의 것이었다는 생각이 회한처럼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기자에몬이도를 흠모하는 일본의 다인들에게 자신들이 보잘 것 없는 그릇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냈다는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찾사발은 오래동안 사용하면 찻물이 배어 사발의 색이 바뀌어 간다. 그래서 차도구는 사기장이 만들고 차인이 완성한다고도 한다. 이 사발은 누구의 것일까? 기자에몬이도에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치면서 생겨난 무수한 이야기와 이 그릇에 바쳐진 수많은 찬사와 오해가 찻물이 스미듯 덧입혀져 있다. 사람들은 그릇에 무언가를 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읽기도 한다. 보잘 것 없는 조선의 사발 하나가 어느 일본인의 손에 들려 바다를 건너간 그즈음에 도자기 전쟁으로 불리는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일본은 당시 끌려간 사기장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도자기 문화를 꽃 피웠고 엄청난 양의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하게 된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도자기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서구 사회에 각인시켰으며, 당시로서는 첨단의 기술력이었던 도자기수출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한 국부의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아마도 이 작은 그릇의 진정한 의미는 그릇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릇이 말 없이 전해주는 많은 사연들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오랜 역사의 회한까지가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하나의 사물이 단순한 쓰임의 시간을 넘어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는 길을 보게 된다. 문화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명분과 예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도대체 저것이 누구의 것인가하는 의문은 잊게 되었다.



글쓴이 소개

조 성 찬

- 화가, 도예가
- 해울도예공방 운영

나라님께서 터 잡으신 해미읍성

정 명 재

서산시문화관광해설사

1416년 병신(丙申)년 2월 16일은 조선 태종이 해미현에서 하루를 머무신 날로 해미현의 경사이며 뜻 깊은 경축일이 었다. 태종이 그해 2월 4일 도성을 출발하여 내포지역을 돌아보시고 2월 22일에 환궁 하신다.

내포 강무 중 2월 9일에는 충령대군을 “큰일에 임하여 대의(大疑)를 결단하는 데에는

당세에 더불어견줄 사람이 없다.”며 기뻐하셨다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으로 보아 충령대군과 함께 내포지방 강무를 하시고 해미현에도 함께 머무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태종이 충령대군에 대한 기대와 장차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태종은 1407년 정해(丁亥)년 9월 5일에는 정해현과 여미현을 병합하여 해미현을 만들었다. 이날을 지금의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5일로 처음으로 해미라는 지명이 생긴 날이며 해미면의 시작이 된 해미현의 개현일을 해미면민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할만한 날이다.



〈주한미국대사와 대사관 자전거 팀〉



두개 현의 병합 이유는 당시의 지역여건이나 경제사정으로 보아 두개의 현 유지가 어려웠고, 나라의 사정으로는 서해안에 출몰하는 왜구와 국가의 변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려 말부터 세가 크게 확장되어 자주 침범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이산(지금의 덕산)에 병마절제사 영을 두었고, 해안방어를 위해 회이포(보령시 오천항)에 수군첨절제사를 두고 해안을 따라 수군만호 7명을 배치하여 충청도 방어의 요충지로 삼았다

해미현에서 머무시며 이산은 서해안에서 깊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반면 해미는 바다 어귀에서 6리에 있어 해안방어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하고 병마절제사를 둘 것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해 12월2일 태종은“이산(伊山)의 내상(內廂)은 깊은 곳이 아닌가? 해변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고명하시고 절제사를 역임한 이지실 신유정 김남수와 논의하게 한 것은 이산의 병마절제사영을 해미로 옮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종 이방원은 1367년(고려 공민왕 16) 정미(丁未)년 5월 16일 함흥부(咸興府) 귀주(歸州)에서 아버지 이성계(李成桂)와 어머니 한씨(韓氏)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나이 열여섯에 고려(高麗) 진사시(進士試)에, 이듬해에는 병과(丙科)에 제7등으로 급제하여 22세에 정5품의 전리정랑에 올라 조선의 왕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임금이기도 하다.

역사의 전환점이 된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偶王)이 폐위되고 창왕(昌王)이 왕위에 오르면서 중국의 명나라와 관계개선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에 고려에서는 시중 이색(李穡)을 정사로 겸서 밀직사사 이숭인(李崇仁)을 부사로 이방원을 서장관으로 정하여 명나라의 남경(南京)에 보내 신년 하례하와 그 동안의 일을 해명하는 사신으로 가게 된다.

일찍이 아버지 이성계 장군을 도와 외적 토벌에 나서기도 했고 반대파를 꺾고 세력을 넓혀 조선 건국의 초석을 다져 26세 때에는 아버지 이성계가 고려를 이어 조선의 태조가 되었다.

태조 이성계는 신궁(神弓)의 명장으로 30년 동안 고려전국을 누비며 100전 100승으로 왜구를 섬멸하여 민심을 돌려 평화적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태종은 청년기에 고려의 관리로 왜구의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충청 서해안은 삼하도의 세곡 운송에 중요한 항로로 왜구의 잦은 출몰에 그 피해가 컸으므로 그 대책이 시급한 했다. 서해안과 내포지역을 돌아보실 때 군사 7,000여명이 동원되는 대가 행차에 충청도는 물론 멀리 전라도까지 지방수령들이 얼마나 긴장하였을지는 가히 짐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된 해미읍성은 태종이 직접 돌아보시고 터를 잡으신 곳으로 긴장한 지방수령들이 백성을 동원 성을 쌓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우리나라의 읍성 중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것은 임금님께서 하루를 머무신 곳이며 직접 터를 잡으신 곳이기 때문에 충정도 백성들이 나라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뭉쳐 정성껏 성을 쌓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성돌을 운반하였는지 알수 없지만 짧은 기간에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 온갖 지혜와 슬기를 모으고 능률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고을마다 분담구역을 정하여 성을 쌓았다.

아직 성 돌에 있는 축성분담 고을의 표기를 찾아 성곽둘레에 표석을 세워주고 어디에서 큰 성 돌을 어떻게 운반하여 쌓았는지 그 방법을 찾아 설명해주면 실감나는 해미읍성 관광이 될 것이다. 그 옛날 민초들이 남정네는 성 쌓는 일에 나가고, 아낙네는 남정네의 빈자리를 채워 가정을 지키며 철 따라 입을 옷을 만들어 보냈다.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내보낸 아낙네는 날마다 밤잠을 설치며 정화수를 떠놓고 무사히 성 쌓는 일을 마치고 돌아 오기를 빌었다.

이렇게 지혜와 슬기를 모아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충청도민의 애국정신을 읍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설명해 준다면, 전국 곳곳의 관방유적에서 굶주림을 인내로 극복하며 나라를 지킨 우리 조상들의 호국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해미읍성은 연중 성지순례를 비롯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금년 5월 30일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대사가 대사관 자전거 팀과 해미읍성을 방문하여 옥사와 회화나무 등을 돌아보고 진남문에 올라 쉬면서 방명록을 기록하고 천리포수목원을 향해 떠났다. 방명록엔 "주한미국대사관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심은경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스티븐스 미국대사께서 일행과 함께 떠난 후 그의 트위터에는 정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해미읍성을 둘러보며 잠깐의 휴식을 즐겼습니다." 라고 올라있었다.

비록 조용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미읍성에 다녀가신 귀빈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 캐슬린 스티븐스〉

※ 참고자료 : 조선왕조실록

※ 사진제공 : 주한미국대사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야!

임 미 영

‘엄마의 공책 부끄럽고 아름다운’

오랜만에 찾은 서점에서 가지런히 진열 되어 있는 책들 중 유독 한 권의 책에 시선이 멈춰졌다. 제목에서 영? ‘엄마의 공책 부끄럽고 아름다운’ 엄마? 어떤 엄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둔 초보 엄마일까? 아니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둔 나 같은 학부형 엄마일까? 그것도 아니면 자식들 다 키워 출가 시키고 난 노년의 엄마가? 궁금한 마음에 얼른 책을 펴 보았다.

책장을 넘겨 지은이 소개를 보니 저자는 노년을 맞은 평범한 엄마라 했다. 평범한 엄마라. 과연 평범한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글을 써 책으로 펴내게 된 걸까? 나는 호기심과 기대에 다음 장을 넘겨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어 나가며 평범한 엄마들의 많은 공통점과 그래서 엄마들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더불어 나의 엄마들(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자와 일심동체가 되어가며 한 장 한 장 글을 읽어 나갔다.

책을 펼치자마자 눈에 띈 첫 꼭지의 소제목부터가 나의 가슴을 세차게 뛰게 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저자의 엄마가 일흔이 되던 해에 민화를 처음 시작하셔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프로수준이 되셨고 다시 수채화를 시작하셨다 한다.

내 친정엄마가 전화 통화를 할 때 마다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다. ‘여자라고 남편과 아이만 바라보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세월만 보내면 안 된다. 취미로 하든지 나중에 다시 네 직업을 갖든지 지금 부터 뭐든 배워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늦지 않았다. 남편과 자식도 중요하지만 네 인생 역시 중요하다. 한번 뿐인 네 인생인데 네 스스로 아끼고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아내나 엄마가 아닌 한사람으로서의 네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이 들어 후회하는 일 없게 오늘을 살아라.’ 어쩔 이리도 통하는 걸까?

엄마들은 당신들이 미처 알지 못해 하지 못하고 혹은 아내로써 엄마로써의 현실에 묶여 삶이 바쁘고 고단해 지나쳐 버린 많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다음 세대의 엄마인 우리 딸들이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난다.

저자는 엄마의 말씀은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라는 것’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 역시 엄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장을 읽어 나갔다. 그러던 중 ‘엄마가 지켜 줄 거야’라는 꼭지에서는 숨이 멎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다. 저자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지 난관에 봉착하면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은 어머니가 지켜 줄 꺼라 믿으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이신다.

난 눈물을 글썽이며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면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무언가를 가슴 안에서 토해 내고 있었다. 그건 아마도 무의식 중 울진에 사시는 친정엄마가 떠올랐기 때문인가 보다. 살아가면서, 특히 내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된 후에는 슬프거나 속상한 일, 해결하기 어려운 일, 혹은 아이가 아파 당황스럽고 막막할 때도 친정엄마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해결이 되곤 한다.

자그마한 키에 아담한 체형. 이젠 나보다도 작고 약해지신 엄마지만 그래도 엄마는 내게 그 어느 바다 보다 넓은 안식처요 피난처이다. 그러나 최근 언제까지나 옆에서 함께 해 주실 것 같았던 어머니의 찾아진 병원 진료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엄마, 제발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함께 옆에 있어주세요’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빌어본다.

또 다른 쪽지에서 저자는 영킨 실타래를 풀며 거기서 오는 희열을 우리 인생에 비유했다. 나 역시 살아가며 뜻하지도 않게 꼬여 얽히는 일들이 어느 순간 매듭을 찾아 하나씩 풀려 나갈 때면 술술 풀어지는 것이 꼭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런 일상에서의 평범한 내 느낌을 인쇄된 글에서 만나다니 반갑고 놀랍기까지 하다. 또 웬지 나도 작가가 된 듯한 착각마저 불러 일으켜 나의 가치에 나 스스로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한다. 풋, 나 혼자만의 착각일까 하는 생각에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이런 것 또한 평범한 엄마들의 아주 작은 기쁨이요 또한 책을 읽는 묘미가 아닐까?

‘옛날 옛적 정안수의 효과’ 라는 쪽지에서 저자는 아들 낳기를 소원하는 친구를 위해 보름날 자정 자신의 집 마당한편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친구에게 전해준다. 그 일이 있은 후 친구는 진짜로 아들을 낳았다. 저자는 자신도 딸아이 하나뿐인데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잠시 토로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 효과로 그 친구는 아들을 낳은 걸까? 나도 우물 있는 집에 사는 친구를 찾아볼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잠시 해 보며 궁금함을 달래본다. 이렇듯 연배와 상관없이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갖고 한 시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여인이요 어머니인 것이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하던 내 이웃언니, 친구들의 이야기 인 듯 자연스레 공감대가 생긴다.

이런 느낌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독서를 미루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쪽지에서 저자의 지금의 생활 모습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리고 있다. 십년 전 강원도 봉평으로 내려가 집을 마련해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지낸다. 서울에 공연이 있으면 공연을 관람하러 오기도 하며 문화생활도 즐기고, 남편은 하고 싶어 하던 목수 일을 하며 노년생활을 한다. 저자는 남편이 만든 많은 새집들과 또 그곳에 삶의 등지를 틀고 사는 새들의 먹이 쪼는 소리에 아침을 연다. 이런 평화롭고 여유 있는 저자의 생활 모습이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꿈꾸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엄마의 공책 부끄럽고 아름다운’ 이 한권의 책에서 나는 내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그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나도 내 아이가 커서 읽을 수 있는 어머니의 공책을 남길 수 있도록 현명하고 성실하게 보람된 날들로 하루하루를 가꾸며 알차게 생활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나 자신에게 외친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야!”

서산 천수만 - 버드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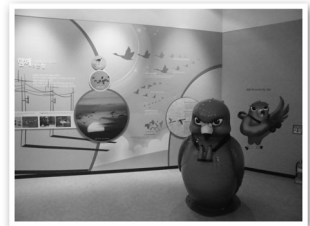


천수만(淺水灣)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남북으로 긴 만이다. 동쪽은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에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태안반도와 안면도와 접하는 곳이다.

천수만은 생태계의 보고로서 특히 현재까지 총 320여종 40여만 마리(하루 최대 개체수)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노랑부리저어새의 우아한 자태, 가창오리의 아름다운 군무, 고니, 청둥오리, 기러기의 힘찬 비상을 만나볼 수 있다.

그 동안 서산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을 통해 가족단위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만나왔던 천수만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서산 부석면 창리 일원에 지어진 “서산버드랜드”의 개관이 그것이다.

서산버드랜드는 부석면 창리 일대에 총 면적 244,197㎡에 조성되는 천수만의 생태공원이다. 2009년 9월부터 착공하여 오는 2011년 11월 4일 부분개관을 앞두고 있다. 철새박물관, 4D영상관, 야외공연장 등이



문을 열 계획이며 개관식 이후에는 11월 6일까지 3일간 “2011 천수만 가창오리 석양군무기행”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철새음악회, 무료탐조투어, 철새 4D영상 상영 등 석양이 물든 천수만의 하늘과 철새의 아름다움과 재미있는 체험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개관식 이후에는 상시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철새박물관 및 4D영상관 운영, 철새탐조투어, 기획사진전, 어린이 생태놀이 교실, 논빙상체험 등 언제든지 방문하여 천수만의 생태와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 철새 박물관

천수만의 새와 숲을 상징하는 조형물 형태로 천수만에 서식하는 큰기러기,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등 200여종의 철새에 대한 다양한 표본 및 전시자료와 영상자료, 새소리 등을 전시하고 있다.

● 4D영상관

천수만의 산을 상징하는 형태로 천수만의 대표적인 철새를 입체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영상관이다. 천수만의 30여만 마리가 넘는 철새의 대군무와 아름다운 천수만의 배경이 오감으로 표현되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 실시간 철새탐조

서산 천수만의 갈월도 지역 중 주요 철새 서식 관찰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간월도의 풍경과 철새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예약을 통해 실시간 탐조뿐 아니라 CCTV 카메라 방향을 직접 조작하여 관찰 할 수 있어 또 다른 탐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2012년 3차 공사 준공이후 공식 개장하게 되면 야생동물치료센터, 철새 전망대, 탐방로 및 산책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제 천수만은 서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서 국제적인 생태체험 관광지로 발돋움 할 차례이다. 새와 사람이 만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 될 천수만이 벌써 기다려진다.

- 명 칭 : 서산버드랜드
- 주 소 :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산 5-1
- 문 의 : 041)660-3024
- 관 랐 료 : 철새박물관-무료
4D영상관-청소년,군인: 1,000원 성인-2,000원
(15인 이상 단체관람시 할인)
- 홈페이지 : www.seosanbirdland.kr

서울 종로구

대학로 문화지구

대학로는 알아도 대학로문화지구는 생소하다.

대학로 일대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이 위치했고 일제강점기 대한제국의 공업전습소, 경성제국대학, 해방이후에는 서울대학교가 자리하여 대학로라 불려졌다.

이후 1979년 서울대학교 이전이 완료되고 1981년 현 문예회관 자리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문예회관 대극장'이 자리 잡으면서 공연장을 중심으로 연극인 및 소극장들이 입지하기 시작했다.

2004년 5월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정책적으로 소극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현재 140여 개의 공연장들이 대학로에 둥지를 틀고 있다.

대학로에는 공연장 뿐 아니라 건축계의 거목 김수근 선생님의 작품인 샘터사, 아르크 예술극장, 아르크미술관 건물이 있고 쇠대 박물관 등 박물관도 있어 문화지구 전체가 품격 있는 예술의 도가니다.

대학로는 매일 연극, 연중 축제

대학로는 대학로이기에 매일 연극공연이 있다. 그리고 일 년 내내 축제다.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주말이면 항상 무대공연과 거리공연으로 북적인다. 이름 없는 무명 연주가, 개그맨이 되려다 만 가수, 나도 공연이라 주장하는 공연까지.. 산책하듯 다니면서 공연을 만난다.

마로니에축제, 재즈FESTIVAL, 국제아스테시축제, 대학로거리문화축제, D.FESTA 등 종로구청에서 관여하는 축제와 한국공연예술센터, 서울연극센터, 소극장협회,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등에서 주최하는 것까지 합하면 셀 수 없다. 대학로에 오면 축제를 만난다.



〈마로니에 공원〉



〈다양한 소극장들〉

〈마로니에 광장 장터〉

〈거리공연〉

〈싯대 박물관〉

대학로 소극장협회의 D.FESTA

D.FESTA는 대학로소극장축제다. 대학로문화지구의 원천, 소극장들이 모여 만든 한국소극장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학로를 상징하는 축제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거리공연과 실내연극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D.FESTA의 2011년 주제는 ‘대학로로 마실가자!’

11월 27일까지 진행되는 D.FESTA는 Out Door 공연과 In Theatre 공연으로 나뉜다. Out Door 공연은 인도, 미국, 일본, 체코,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케냐, 베트남 등 해외초청작 그리고 상상 공장, 백제예술대, 에릭 스캇 등 36개 팀이 함께하는 국내초청장으로 진행된다.

10월 17일 부터 진행되는 In Door 공연에는 지역공모작 ‘저 사람 무우당 같다’, ‘빨간 피터의 고백’ 외 6작품과 회고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체코 인형극 ‘체코 마리오네트 프라하’, 어린이극 ‘아리스토리’ 외 8작품이 기다리고 있다. (<http://www.dfesta.co.kr>)

D.FESTA는 종로구의 ‘인사동전통문화축제’, ‘청계천육의전체험축제’, ‘운현궁전통음식축제’와 더불어 2011년부터 시작하는 古GO종로문화FESTIVAL의 4개 대표축제에 선정되어 앞으로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종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곳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종묘’가 종로구에 있다. 아시다시피 종로구에는 조선의 5대 궁궐 중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창경궁이 있고 수많은 문화유적과 명소들이 지천이다.

그래서인지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들은 전통은 구경하고 현대는 많이 놓치고 있다. 대학로문화지구는 전통에 푹 빠져 자칫 놓칠 수 있는 곳이라 꼭 방문하길 것을 추천한다.

대학로는 거리구경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연극 한 편 관람은 기본이다. 최근 대학로에 연극관람을 강요하는 호객꾼들이 넘쳐나지만 의연히 뿌리치고 마로니에공원 앞에 있는 ‘좋은공연안내소’를 방문하여 원하는 연극을 골라 보시기 바란다.

대학로는 연극인과 주민 그리고 상인들이 함께 가꾸어야 더욱 대학로다운 대학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학로의 진가를 알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대학로소극장축제 D.FESTA <http://www.dfesta.co.kr>
 서울연극센터 <http://daehangno.or.kr>
 한국소극장협회 <http://www.smalltheater.or.kr>
 공연정보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http://app.sfac.or.kr>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법



최 미 숙
대화법 상담 강사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서로 말없이 눈치만 보고 있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거나 또는 언짢은 마음을 감추고 웃으며 대화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할 수 있는지는 질문을 한다. 대화는 '잘 듣고, 잘 말하면' 잘 하는 것이 아닐까.

“일상생활에서 대화하기 가장 힘든 대상은 누구 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남들과는 그런대로 대화를 잘하는데 내 가족과의 대화가 가장 힘들다.”는 대답을 많이 듣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나와 가장 가깝고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해 주겠지”하는 믿음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하는 애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하기 때문은 아닐까?

대화란? 우스개로 ‘대놓고 화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고개가 끄덕여 지며, 웃음도 나오면서 그러나 한 편 씹쓰레한 느낌, 그렇다면?

대화란 말을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말과 대화는 다르다. 대화는 주로 말로 하지만, 말은 대화가 아닐 수 있다.

이는 대화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오고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이에 그 마음이 오고감을 뜻한다.

말이란 마음을 실어 전하는 도구이다. 또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공간 어딘가에 박혔다가 급기야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 내 말이 어디에 박혔다가 어떤 식으로 내게 되돌아 올 것인가, 나의 말이 우리 아이 마음에 혹시라도 비수로 꽂혔다면 어느 날엔가 내게 비수로 되돌아와 박힐지도 모를 일이다. 사랑으로가 닿았다면 필시 사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할까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다. 그러나 기도만

어머니의 기도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하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공손히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비웃거나 창피를 주거나
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열함을 없애 주시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는 부족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자동적으로 나와 버리는 말들. 내 마음과 달리 나와 버리는 잔소리들을 다스려 진정 자녀들 마음에 사랑으로 가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급함 없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내가 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내게 돌아오며, 그때 우리의 기도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자녀들. 이제 실력과 함께, 남들과 더불어 자신의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한다.

이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주어진 과제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기 보다 “난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의 힘이다. 그것이야말로 부모 밖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가족들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대화하고 싶고 대화가 잘되는 대상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서슴없이 달려와 품에 안기며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부모, 때로는 힘들어하는 부모님께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자녀들, 서로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모습, 우리의 가족은 어떠한가?

대체로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가족들이 많지만,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힘들어 하는 가족들도 만나게 된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 원칙은 말의 양(量)보다 질(質)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에서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말들은 잔소리가 되기 쉽다. 그래서 무엇(內容)을 말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方法) 말할까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해본다.

또한, 우리의 기본태도(마음가짐)가 어떠한가에 따라 대화의 방법이 달라진다. 즉 말투가 달라진다. 내가 내 자녀를 한 개인으로 존중하면 존중하는 말투가 나오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면 공감적인 말투, 수용하면 수용하는 말투가 나오며,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일관성 있는 성실한 태도라면 우리 자녀에게 성실한 태도로 대할 것이다.

대화의 기본태도(마음가짐)가 잘 되어 있어도 말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대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대화에는 듣기와 말하기가 있다. 자녀나 상대의 감정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상대의 의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 상대의 의사를 듣는 방법으로는 침묵의 대화, 대화의 열쇠를 사용하는 대화, 깊이 듣는 대화(공감적 대화)등이 있다. 또한, 나의 감정이 올라갔을 때는 나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나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상대의 행동을 평가나 비판 없이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현상만을 표현해 주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를 주어(I message)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

이렇듯 감정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듣기와 말하기로 문제해결이 되지만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갈등 또는 욕구의 갈등은 존두이의 문제해결의 대화 6단계로 풀어나간다.

대화의 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언제 어떤 대화방법을 사용하느냐만 알아도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법은 대화법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장 훌륭한 조연자, 협력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뜻한 음식이 생각나는 계절

홍 윤 경

서산요리학원 원장

‘버섯의 계절이다’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이 절정을 맞이하는 계절인 만큼 다양한 조리법으로 버섯요리를 즐겨보자.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여 동맥경화를 비롯한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낙지, 영양도 풍부하지만 쫄깃쫄깃 씹히는 맛이 일품. 여름동안 잃었던 입맛을 찾아 원기를 회복하여 풍요롭고 건강한 가을을 만끽하자.

● 낙지전골

찬바람 불고 식탁이 허전할 때 살아 꿈틀대는 싱싱한 산낙지 한 마리 사다 전골을 끓여 보자. 보글보글 열큰한 국물을 먹을 때마다 풍부한 단백질, 칼슘, 미네랄로 몸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진다.



- 주재료 : 낙지 2마리, 쇠고기(우둔살) 100g, 조갯살 50g, 대파 1대, 양파 1/2개, 풋고추 2개, 홍고추 1개, 썬감 30g, 무 100g, 밀가루
- 〈쇠고기양념〉 : 진간장 1큰술, 다진마늘, 다진파 1/2큰술씩, 설탕 1/3큰술,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약간씩
- 〈낙지양념〉 : 진간장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1큰술, 생강즙 1/2큰술, 다진마늘, 다진파 약간씩,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 〈장국〉 : 물 2~3컵, 청장(국간장), 소금 약간씩

▶만들기

- ① 낙지는 밀가루를 넉넉하게 뿌려 바락바락 주물러 깨끗이 씻은 뒤 4~5cm 길이로 썬 후 낙지 양념으로 버무려 놓는다. 조갯살은 소금물에 흔들어 씻어 놓는다.
- ② 물을 끓인 후 청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장국을 준비한다.
- ③ 쇠고기는 핏물을 제거한 후 가늘게 채 썬 뒤 분량의 양념을 넣고 밑간한다.
- ④ 양파는 손질하여 굵게 채썰고, 썬감은 줄기를 다듬은 뒤 깨끗이 씻어 놓는다. 대파는 흰 부분만 손질하여 5cm 길이로 썬다.

- ⑤ 무는 알파라게 썰어 끓는 물에 데친다. 홍고추와 풋고추는 어슷썰어 씨를 털어낸다.
- ⑥ 전골냄비 바닥에 무를 깔고 준비해 둔 낙지와 쇠고기, 조갯살, 양파를 가지런히 돌려 담는다.
- ⑦ 가지런히 돌려 담은 전골냄비에 장국을 붓고 끓인다. 처음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숙갓과 풋고추, 홍고추 대파 등을 얹어 천천히 끓여 먹는다.

● 버섯전골

은은한 향이 매력인 버섯전골은 따뜻한 육수를 부어가며 먹는 맛이 일품.

- 주재료 : 느타리버섯 50g, 양송이버섯 150g,
표고버섯 100g, 팽이버섯 100g, 새송이버섯 50g,
쇠고기 100g, 쪽파 3뿌리,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무 60g, 호박 100g, 소금
- 〈양념장〉 : 진간장 4큰술, 다진마늘 1/2큰술, 다진파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설탕 1큰술, 후춧가루, 참기름 약간씩
- 〈장국〉 : 물 3컵, 청장, 소금



▶만들기

- ① 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불려 기둥을 떼고 물기를 짰 뒤 납작납작하게 썰고, 양송이는 껍질을 벗겨 알파라게 썬다.
- ② 새송이버섯은 모양을 살려 큰 것은 3등분, 작은 것은 2등분한다. 팽이버섯은 밑동을 자르고 끓는 물에 각각 데쳐 먹기 좋게 찢어 놓는다.
- ③ 쇠고기는 곱게 채썰고, 무는 알파라게 썰어 물에 데친다.
- ④ 쪽파는 4cm길이로 썰고, 호박은 반달모양으로 썬다. 홍고추와 풋고추는 어슷썬다.
- ⑤ 불에 위 분량대로 양념장을 만들고, 장국도 준비해 놓는다.
- ⑥ 불에 손질한 여러 가지 버섯과 ③의 쇠고기를 넣고 양념장 중 절반을 덜어 넣은 후 고루 무쳐 양념한다.
- ⑦ 무와 호박에 나머지 양념장을 넣고 무친뒤 전골냄비 바닥에 깔다. 그위에 양념한 버섯과 쇠고기, 쪽파, 풋고추, 홍고추를 색스럽게 돌려 담고 준비한 장국을 붓는다. 천천히 끓여가며 먹는다.

※전골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주말이나 기념일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즉석에서 끓여 먹어야 제 맛이 난다. 재료를 먼저 손질했다가 육수만 부어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육수는 처음부터 많이 붓지 말고 끓이면서 천천히 부어가며 먹도록 하고, 입맛에 따라 떡이나 국수(당면)를 곁들이면 한결 푸짐하다.

● 참고 문헌 「김숙년의 600년 서울 음식」

문

화

원

수

직

■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전통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전승, 보존하기 위한 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에 “서산 덕지내·돌개미 두레놀이”가 참가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10월 8(토)
- 장 소 : 전남 여수시 학동 거북선 공원
- 참여인원 : 80명(장동·덕지천동 주민회, 스산농요보존회, 놀이패 뽕바람, 서산박점지놀이 등)

■ 임동창 風流-오청취당의 꿈

여성시인 오청취당을 시와 임동창의 음악이 만나는 음악회.

- 일 시 : 2011년 10월 10(월) 19:00
- 장 소 : 옥녀봉 단군전
- 대 상 : 서산시민 누구나

■ 백제역사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백제사에 대한 재조명 및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백제역사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1. 11. 1~12. 9(강의-12회, 답사-2회)
- 강의시간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4시
- 답사일시 : 11. 18(금), 12. 9(금) 09:00~18:00(공주, 부여일원)
- 강의장소 : 서산문화원
- 정 원 : 50명
- 교 육 비 : 무료
- 신청문의 : 서산문화원(669-5050)
- 주 최 : 충청남도
- 주 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서산문화원

※강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 | 정 | 소 | 식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 안내

- ▶ 접종일정 : 2011.10.4(화) ~ 10.31(월)/09:00 ~ 16:00
- ▶ 접종장소 : 서산시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 무료 접종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1951년 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1,2,3급
 - 집단수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닭, 오리, 돼지농장 종사자
- ▶ 유료 접종대상
 - 만 3세 이상 접종 희망자
 - 접종금액 : 7,300원
- ▶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의료급여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동별 접종 일정표

동별 일정을 “꼭” 지켜주셔야 큰 혼잡 없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읍내, 갈산동(부춘동) : 10.4(화)
- ▶ 동문, 온석, 잠흥동(동문1동) : 10.5(수)
 - ※ 동문1동 : 1,2,31,32,33,34,35,36,37,41,46통
- ▶ 동문동(동문2동) : 10.6(목)
 - ※ 동문2동 : 42,43,44,45,47,51,52,53,61,62,63,71,81,82통
- ▶ 수석동, 석림동(수석동) : 10.7(금)
- ▶ 석남, 예천, 죽성, 양대, 오남, 덕치천, 장동(석남동) : 10.10(월)
- ▶ 시내 전지역 : 10.11(화) ~ 10.31(월)
 - ※ 읍면 지역은 지역별 보건지소에 리별 접종일정 문의 바랍니다.
 - ※ 중증질환자, 심장질환자, 만 3세미만 영, 유아, 임신부는
주치의(병의원)와 상담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류재곤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김의식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김종윤 (서산시 인지면) 50,000원 | |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김기조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가재호 (서산시 성연면) 10,000원 | • 이재성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한정수 (서산시 운산면) 100,000원 | • 이용조 (청주시 용암동) 40,000원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

※ 지난호(335호) 19페이지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地圖)를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로 수정합니다.



목 차

2011년 • 10월호



훈민정음 [訓民正音]

1446년(세종28) 음력 9월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하였다.
훈민정음은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국보 제70호에 지정되었다.

- 03 공약(空約)이 난무하는 공약(公約)의 시대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04 서산해역의 역사민속과 민중생활사 (주강현 / 해양문화연구원장)
- 08 서산의 문화인물-독립운동가 이철영
- 10 <공주의 남자>의 실제 주인공은? (김종성 / 역사학자)
- 13 인터뷰-김동익 선생 (유병인 / 서산문화원 이사)
- 16 미술칼럼-사발을 생각한다. (조성찬 / 미술 강사)
- 19 나라님께서서 터 잡으신 해미읍성 (정명재 / 서산시문화관광해설사)
- 22 서경옥님의 [엄마의 공책 부끄럽고 아름다운]을 읽고 (임미영)
- 24 서산 천수만 [버드랜드]
- 26 문화공간-대학로문화지구
- 28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법 (최미숙 / 대화법 상담 강사)
- 30 따뜻한 음식이 생각나는 계절 (홍윤경 / 서산요리학원 원장)
- 32 문화원소식
- 33 시정소식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http://www.seosan.go.kr>

서해안의 중심도시 서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서산**으로 오세요!

서산은 바다를 접한 온화한 기후로 자연재해가 적은 천혜의 **복받은 고장**입니다. 만과 반도, 낮은 구릉지대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청정농수산물에 풍부하며 **세계의 철새가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가 살기 좋은 곳이 곧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서산은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종교와 철학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불교의 최초 전래지로 국보 84호인 **마애여래삼존상**이 있으며,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인 **해미읍성**이 있습니다. 조선조 최고 산수화가인 **안견**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된 문화수준이 높은 고장 서산은 예절을 중시하는 **양반의 고장**이기도 하며 **넉넉한 인심**도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과 더불어 대산항 개항, 자동차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져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서산으로 오세요!



해미읍성



별천포해수욕장



보원사지



마애여래삼존상



철새도래지



용현계곡





ebook.
cult21.or.kr



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서산의 풍경** | 비매품(통권 제336호)

발행일 2011년 10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총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남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